

# 2023년 ITU 이사회 주요 결과

전선민 ITU 이사회 작업반 부의장(CWG-WSIS&SDG),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1. 머리말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서 2023년도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48개 이사국 대표단과 참관인<sup>1)</sup>(Obsever) 등 4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네바대표부를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의제 담당자들이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이사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의 최고회의인 전권회의(PP, Plenipotentiary Conference)의 회기 간 매년 ITU의 사업계획·예산·결산을 승인하고 전략계획·재정계획 이행 현황 등을 검토하며 ITU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금번 이사회는 2022년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이사국들과 ITU 신임 운영진(신규 선출직)들의 임기 첫 이사회로 연합의 향후 비전과 역할,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 2. 2023 이사회 주요 결과

ITU 사무총장 Ms.Doreen Bogdan-Martin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 온라인에 연결되지 못한 세계 27억 명이 모두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전권회의에서 ITU 회원국들이 새로운 전략계획 채택을 통해 설정한 보편적 연결성과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두 가지 목표의 심도 있는 이행 노력을 통해 전략을 행동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 연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재정혁신 계획과 관련된 조치도 제시했다. 사무총장이 제시한 이러한 혁신 로드맵과 재정혁신 계획은 ITU 본부 프로젝트와 이사회 작업반 의장단 선출과 함께 금번 이사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난항을 겪은 이슈였다.

### 2.1 ITU 운영과 재정 및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개혁(안)

ITU는 감독 기능과 능력 강화를 위한 감독부서(OU, Oversight Unit)를 설립하고 감독부서 책임자(D1급) 직위 신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조직 우수성 달성을 위한 혁신 로드맵(Transformation Roadmap)을 발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팀 리더 직위(D1급)를 포함한 혁신 팀 구성 승인도 요청하였다. 또한 ITU는 혁신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은 현 재정 규정

<sup>1)</sup>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과 부문회원은 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 회원국 참관인은 기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이 발언권을 줄 경우 의제별 1회 발언할 수 있으며 투표권은 없다.

및 규칙과 시스템 전반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ITU 전체 차원에서 조직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추가 자원 조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One ITU 자원 조달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ITU 내 자원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외 자금 조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연합의 명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감독부서를 설립하고 조직 우수성 향상을 위한 혁신 팀을 구성하고 One ITU 자원 조달 전략과 재정혁신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신임 선출직의 ITU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수 이사국들은 이러한 개혁 노력이 상호 연결되는 사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ITU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사우디, 남아공, 알제리 등을 중심으로 한 이사국들은 One ITU의 정의가 부재하는 점과 개별 계획에 대해 이사회 작업반에서 예산, 이정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이사국 중 일부는 이러한 변화 추진이 궁극적으로 ITU 헌장과 협약에 보장된 사무총장과 3인의 부문국장을 중심으로 각 부문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ITU의 연방제적 운영 방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ITU의 현 체제 내에서 헌장과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내부 운영 강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사무국과 법률 자문의 추가 설명에도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마지막 날 이사회 의장이 6개 지역별 대표들과 진행한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One ITU는 범ITU(ITU-wide) 자원 동원 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혁신계획은 사무총장이 이행 현황을 차기 재정전략 이사회 작업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독부서(D1급 포함)와 조직 우수성 달성을 위한 혁신팀(D1급 포함) 신설을 승인하였다. 단, 감독부서의 행동강령과 업무 범위의 승인은 재정전략 이사회 작업반을 거쳐 2024년 이사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며, 혁신팀은 현 선출직의 임기인 2026년까지의 혁신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2.2 2024-2025 예산

ITU는 2년마다 예산을 수립하며, 이번 이사회는 3억 2,9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2024-2025년 연합의 2개년 균형예산을 승인하였다. ITU 예산은 제로 명목 성장의 재정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다. 2024-2025년 연합의 2년 예산에는 2024-2027 ITU 전략계획의 2가지 전략목표, 5가지 주제별 우선 순위와 43개의 산출물 이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무국은 현재 예산에 2022년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AI 관련 신규결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표준화부문국 예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2.3 본부건물 신축 프로젝트

연합 본부건물에 대한 논의는 2014년부터 지속되어 재건축, 개보수, 본부 이전 등의 후보안들 중 재건축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신축 프로젝트 예산이 2019년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동 신축 프로젝트는 제네바 인근 유엔지구 건축 프로젝트와 비슷한 형식을 차용하여 회원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그룹과 사무국, 제네바 주정부, 스위스 외교부 및 제네바 대표부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노후건물 철거와 신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조달 프로

세스가 진행 중이나 2019년 예산 승인 당시와 비교하여 3,400만 스위스 프랑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사무국은 프로젝트를 재검토(rescoping)하고 비용 축소를 위해 현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추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스위스 정부는 프로젝트 포기를 고려하기보다 비용 절감 가능성을 파악하여 현재의 틀 내에서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 이사국이 사무국의 제안을 지지하고 전문가 등 당사자와 신속하고 긴급하게 협력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스위스 당국과도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일부 이사국은 추가 후원 및 기부 요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중국은 연구반 회의 개최 등 건설 단계의 ITU 업무 연속성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적으로 사무국이 프로젝트 예산 절감을 위한 업데이트된 건물 필요 사항 분석을 수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건축가와 협력, ITU의 기능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명확한 범위 조정 계획을 추가 이사회(2023년 10월 19일 ~20일)에 제출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사무국이 전권회의와 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결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기부와 후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모든 ITU 회원에게 이사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 2.4 국제전기통신규칙 전문가그룹(EG-ITR) 업무범위 개정

2022 전권회의는 2023 이사회가 EG-ITR의 업무범위와 작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제출된 다국가 기고서들을 바탕으로 인포멀 논의(논의진행: 바하마)를 진행하여 합의하였다. EG-ITR은 회원국과 부문회원에게 개방하며, 동 그룹이 ITR 관련 문제를 계속 고려해야 하며,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 그룹 회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사회 결의 1379 개정에 합의하였다.

#### 2.5 SPACE 2030 의제 실현에서 ITU의 역할

2022 전권회의에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궤도 관련 ITU의 역할을 고려하여 신규 결의 208(SPACE 2030 의제 실현에서 ITU의 역할)을 채택한 바 있다. 전권회의 결의 208에 따르면 ITU의 역할은 우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스펙트럼/궤도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결의 이행현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ITU는 Space 2030 의제의 사무국인 UN Outer Space Affairs와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외기활동에 대한 UN 기관 간 회의 참석 및 특별보고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주가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사국들은 ITU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 2.6 ICT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ICT 발전지수는 ITU가 매년 국가별 ICT 발전정도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개별 국가의 ICT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주요 국제 ICT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별 ICT 발전 현황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이루어진 지표 개선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부터 5년간 IDI를 발표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의 점수만 발표해 오고 있다.

2022년 전권회의 결의 131 개정안에 따라 ITU지표 전문가 그룹에서 IDI 방법론을 논의해오고 있으나 신규 지표에 대한 회의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무국은 8월 중 회원국 회람을 통해 현재의 방법론과 신규지표에 대해 회원국 7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연내에 IDI를 발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도와 알제리 등 일부 이사국이 지표 개정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부분 이사국들은 추후 방법론 개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더라도 연내에 IDI를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는 8월 ITU 전체 회원국 회람을 통해 최종결정 예정이다.

## 2.7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이사회 결의 1408 개정

스페인 등 48개국은 2022년 채택한 전기통신 부문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1408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우크라이나의 통신 부문 재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ITU의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도 동결의 개정 공동 서명국으로서 영국, 캐나다, 미국, EU 국가들과 함께 개정안 채택을 지지하였다. 한편, 중국, 쿠바, 남아공이 동 결의안에 대해 2022년 채택한 통신 재건 지원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ITU에서 정치적 논쟁을 피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러시아는 참관인으로서 시리아나 터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원결의만 논의하는 것은 정쟁이며 2022 전권회의에서 결의로 채택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사회 의장은 중국, 쿠바, 남아공과 참관인인 러시아 의견을 의장 회의록에 명시하고 스페인 등이 제안한 결의 1408 개정안을 승인을 제안하여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 2.8 이사회 작업반 의장단 선출

금번 이사회에서 인터넷 공공정책, 온라인아동보호,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 SIS)&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등 5개 이사회 작업반과 2개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장과 지역별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인터넷(사우디, 캐나다)과 WSIS&SDG(남아공, 폴란드)의 의장이 합의되지 않아 마지막 날까지 지역별 협의 후, 지역별·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인터넷(폴란드), WSIS&SDG(남아공)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10년 만에 WSIS&SDG 부의장에 진출하였으며, 동 의장단의 임기는 2026년까지이다.

또한 금번 이사회에서 내년 설립 예정인 재정전략계획작업반은 사우디, WTPF 전문가 그룹은 캐나다가 의장을 맡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였고, 차기 전권회의 전까지 그 외의 작업반이나 전문가 그룹이 설립될 경우 아태지역을 의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한편 러시아 부의장 후보 4인에 대해서는 특정 국적에 따라 의장단 선출 등에 있어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별 부의장을 합의해 온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부 이사국의 의견이 있었으나 협의를 통해 러시아 부의장 후보 4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류한 채 남기기로 결정하고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 2.9 양성평등 관련 결의 및 결정

사무국은 올해 1998년 양성평등에 관한 전권회의 결의 70 채택 25주년을 맞아 ITU의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이집트, 알제리, 사우디, 모로코 등

은 공동기고를 통해, 여성 참여와 권한 강화와 관련한 활동을 ITU 전 부문에서 이행하고 이를 위한 ITU 내 하나의 통합된 부서를 만들기 위해 사무총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이사회가 지시할 것을 제안하여 승인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스페인 등 40개국은 ITU의 여성 관련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UN의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ITU에서의 새로운 양성평등 실천 계획을 세울 것과, ITU 전문직과 고위급 직원의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즉각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양성평등 실천계획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정 채택을 제안하였다. 동 공동기고에 대해 아랍지역이 당장 이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여 오프라인 협의를 통해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결정 채택에 합의하였다.

또한 금번 이사회에서는 의장을 “Chairman” 이라고 명시하는 이사회 결정 500의 삭제가 이루어졌다. 일부 아랍지역 이사국은 해당 용어는 현 ITU 헌장과 협약에도 사용되고 있어 헌장과 협약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에 반대하였다. 사무국이 동 결정 삭제가 헌장과 협약 개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Chairman”으로 번역되는 영어 회의 문서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여 결정 500의 삭제에 이사국들이 동의하였다. 단, 사우디는 동 결정 삭제가 헌장과 협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이사국들의 우려 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이사회 의장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 3. 맺음말

올해 이사회에서는 ITU의 내부 혁신과 변화 이슈에 대해 이사국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면서 여러 논의가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ITU가 외부감사에 적절한 정보를 제시시간에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추가 이사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추가 이사회에서는 외부감사보고서 외에도 이번 이사회에서 이관된 본부 프로젝트와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9선 이사국으로 이사회 작업반 의장단 진출과 여성, ITU 운영 개선, 재정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내 이사국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다양한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역내 의견 통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권회의 뿐만 아니라 이사회 등 다양한 회의에서 지역별 대표 간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아태지역이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이 9선 이사국이자역내 주요 의견 개진국으로서 이러한 이사국 간 지역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우리가 ITU 내에서 또는 아태지역 내에서 어떤 이점을 취할 수 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위치 재정립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 출처: TTA 저널 제208호